

<http://dx.doi.org/10.17703/JCCT.2023.9.2.333>

JCCT 2023-3-42

미군의 해외파병 장병과 가족 지원정책 연구

A Study on the U.S. Support Policy for Overseas Soldiers and Families

김인찬*, 홍명숙**, 김종훈***, 조상근****, 강성후*****, 박상혁*****

In-Chan Kim*, Mung-Sook Hong**, Jong-Hoon Kim***, Sang-Keun Cho*****,
Sung-Hu Kang*****, Sang-Hyuk Park*****

요약 미군은 제1차 세계대전부터 파병장병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발전시켜오고 있다. 이러한 미군의 파병장병 및 가족 지원정책은 파병 전·중·후 시기별로 구분된다. 파병 전에는 주로 금전문제와 주거문제에 대한 지원이 제공된다. 파병 중에는 장병과 가족의 관계 유지, 자녀의 학업성과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국방부 차원의 커뮤니티가 구성된다. 파병복귀 후에는 장병과 가족의 정신 및 신체건강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국방부 해외파병 업무 훈령을 법률로 격상하여 파병장병 가족이 판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거지원을 받게 할 것, 파병부대와 파병장병 가족 간 파병부대 소식, 육아, 자녀교육 등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커뮤니티를 개설할 것, 일정 기간 동안 파병복귀 장병과 가족의 정신건강을 관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주요어 : 파병장병, 가족 지원정책, 주거지원, 소통 커뮤니티, 정신건강

Abstract The U.S. military has been developing support policies for the soldiers dispatched overseas and their families since WWI. It is classified by the period nowadays as follows. Prior to the dispatch, support for money and housing issues is mainly provided. During the dispatch, the DOD level community is formed to strengthen relations between the soldiers and their families, check their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s, etc. After returning to the military, the mental and physical health care for not only the soldiers but also their families is provided. Based on these facts, this research proposes that the ROK MND's overseas dispatch instruction upgrade to law in order to provide housing support, even if the families don't live in military houses. Simultaneously, an online community is needed to be open for sharing information between them, their children's educational achievements, etc. More importantly, the mental health care for both the soldiers and their families is provided for a certain period.

Key words : Soldiers Dispatched Overseas, Family Support Policies, Housing Support, Online Community, Mental Health

*정회원, 육군 21사단 참모장교 (제1저자)

**정회원, 육군미래혁신센터 연구원 (참여저자)

***정회원, 육군 30기갑여단 참모장교 (참여저자)

****정회원, 육군대학 전략학처 전략학 교관 (참여저자)

*****정회원, 국군의무학교 전투발전처 연구장교 (참여저자)

*****정회원, 우석대학교 군사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2월 9일, 수정완료일: 2023년 3월 2일

게재확정일: 2023년 3월 10일

Received: February 9, 2023 / Revised: March 2, 2023

Accepted: March 10, 2023

*Corresponding Author: plbas@hanmail.net

Dept. of Military Science, WooSuk Univ,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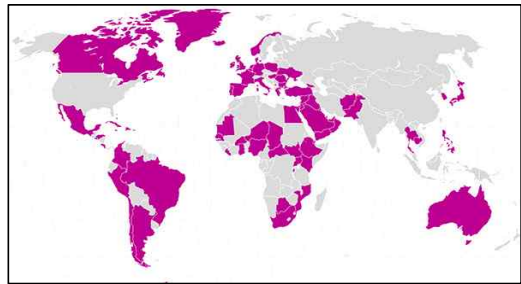
I. 서 론

“군인가족은 군인과 혼외관계(extramarital affair)에 있다.” Kaslow와 Ridenour(1984)가 군인과 군인가족의 심리치료 연구 단행본에서 사용한 표현이다.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군인은 국가와 결혼했다”는 말이 있듯 군인들의 높은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표현함과 동시에 군인가족들의 말 못할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문장이다.

군인가족은 군인을 배우자 또는 부모님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특수한 상황(당직근무, 긴급한 임무 수행, 작전, 훈련, 파병, 타 직업군 대비 높은 확률로 발생하는 사고)에 직면하고 그로인해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느낀다. 군의 특수한 상황이 불러오는 고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군인가족에게 있어 어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상황은 바로 “별거(separation)”이다. Albano(1994)는 ‘군 가족의 불안에 대한 군의 인식연구’에서 군인가족들이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로 별거를 꼽았다. 군인 또한 가족과 별거한 상태에서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가족들에 대한 지속적인 걱정으로 임무수행에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해외파병은 장기간의 별거를 군 가족들에게 중요하고 본토근무에 비해 높은 위험성과 파병종료 후 가족들과의 재적응 과정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해외파병으로 인한 별거는 가족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다. 미 국방부에서 미 상원에 보고한 자료에서는 해외파병(전투부대) 군인과 그 가족간의 이혼/이별의 비율이 높으며 군인과 그 가족의 정신 의학과 진료 비율이 2001년 이후 연평균 15%씩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파병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곧 전투력과 직결됨을 피력했다.

아래 <그림-1>과 같이, 2022년 기준 미국 본토에 주둔한 병력을 제외한 해외에 파병된 미군의 수는 약 16.5만명으로 전 세계에 걸친 주둔기지 수만 800개가 넘는다. 해외파병 미군의 수에 비례하여 ‘해외파병 군인의 가족’(이하 ‘파병 군인가족’) 숫자도 증가한다. 부모, 형제,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하면 약 40만명~50만명에 이르는 파병 군인가족이 있는 것이다.



출처: <https://smartincome.tistory.com/1149>

그림 1. 해외파병 미군 현황

Figure 1. Status of U.S. forces stationed abroad

다행스럽게도 미군은 파병 군인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주요 연구로는 Gewirtz, Degarmo와 Zamir(2018)의 “군인가족 스트레스 모델” 개발, Mansfield 등(2011)의 “파병 군인 자녀의 정신건강 분석”, 미국정신의학회(APA,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 2008년에 발간한 “군인가족상담” 단행본(Counseling Military Families) 등이 있다. 관련 연구 중 Kristensen과 Weisaeth(2012)는 파병 군인가족에게 충분한 정책적 지원으로 국가관, 애국심, 희생정신을 고취시키면 군인이 전사하는 사고가 발생해도 군에 대한 비난이 감소하고 새로운 삶에 적응이 수월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Boss(2002)는 파병군인 가족의 “별거와 스트레스 상황모형” 연구에서 군 가족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극복요인과 극복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시했다. 극복요인으로는 이메일, 편지 등 연락을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과 군인 가족 공동체 생활에 적극 참여하는 것 등이 있고 극복 방해요인으로는 “홀로 지내거나 부대의 도움 없이 지내는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젊은 여성의 경우 군 경험이 없고 군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별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크다고 분석했으며 군인이 해외파병을 가지 않았다면 사소한 문제(아이의 병원진료, 차량의 고장, 주거시설의 보수 등)가 군인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게 만들어 스트레스를 야기한다고 분석했다.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미군은 파병군인뿐만 아니라 파병군인 가족까지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시기 또한 파병시기로만 한정하지 않고 파병 전, 중, 후까지 확장하여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군 가족 지원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며 특히 해외파병 장

병의 가족에 대한 연구는 없다. 미군의 사례에서 보듯, 먼저 연구가 활발해지면 군 당국의 실질적인 지원도 활성화 될 것이기에 이 논문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미군의 제도를 살펴보고 한국군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1,2].

II. 미군의 파병 전·중·후 지원방안

파병군인과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종류와 그 내용은 미 국방부 예하 기관인 “Military One Source”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한국, 일본, 독일 등 비전투파병의 경우 가족동반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전투파병군인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 위주로 제시하였다.

2. 1. 파병 전(Preparing for Deployment)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기’ 로부터 ‘재외국민 투표’에 관한 내용까지 총 16가지의 관리 프로그램이 있다. 여기에는 ‘반려동물 관리(Pet Management)’, ‘파병수당의 재무계획(Financial Plan)’ 등도 포함되어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서양의 정서를 고려하고 파병 후 군인가족간 주된 문제를(충동적 소비로 인한 의견충돌이 가정불화로 이어지는) 파병 전부터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파병을 앞둔 군인과 그 가족의 가장 큰 고민은 주거문제, 그리고 임무수행 중 사망이나 부상으로 인한 가족들의 생계곤란일 것이다.

이를 해소해주기 위해 법률과 예산, 행정이 조화를 이룬 ‘군 장병가족 지원법(SCRA, Servicemembers’ Civil Relief Act)’이 있다. 이 법에 의거하여 파병 중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의 계약기간이 종료해도 퇴거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계약기간 중 파병으로 주택을 옮겨야 할 때 위약금 없이 파기가 가능하다. 미군은 군에서 제공하는 관사에 주로 거주하는 한국군과 달리 대부분이 민간 주택에 거주한다. 따라서 군인과 그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주거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게 함으로써 불안을 최소화하는 의의가 있다 하겠다. 또 다른 사례로 ‘포괄적 독극물 보상법(PACT Act, Promise to Address Comprehensive Toxics)’ 이 있다. 이 법은 아래 <표-1>과 같이 군 단체 생명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하여 적은 비용으로 군인의 사망이나 부상

로 인한 생계곤란을 보완하고 있다.

표 1. 군 단체 생명보험 보험료

Table 1. Servicemembers’ Group Life Insurance Plan
 단위 : U.S. Dollar(\$)

보장금액	생명보험료	부상보험료	합계
400,000	24	1	25
350,000	21		22
300,000	18		19
250,000	15		16
200,000	12		13
150,000	9		10
100,000	6		7
50,000	3		4

출처: <https://www.va.gov/life-insurance/options-eligibility/sgli/>

군 가족들은 ‘군 단체 생명보험(SGLI, Servicemembers’ Group Life Insurance)’ 약관에 따라 파병 중 사망 시 \$400,000(한화 약 5억원)를 수령하며 이에 대한 보험료는 월 \$24(한화 약 3만원)이다. 부상에 대한 보험금은 부상정도에 따라 \$25,000(한화 약 3천만원)~\$100,000(한화 약 1.2억원)를 수령하며 이에 대한 보험료는 월 \$1로 군인과 군 가족의 부담을 최소화 했다. 보험가입과 연계하여 사망보험금 수령에 대한 수익자 지정, 유언장 작성, 재산과 재산행사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하며, 이와 관련된 법률서비스 일체를 군 가족들에게 무료로 지원하여 배우자나 부모의 사망으로 일어날 수 있는 수입 중단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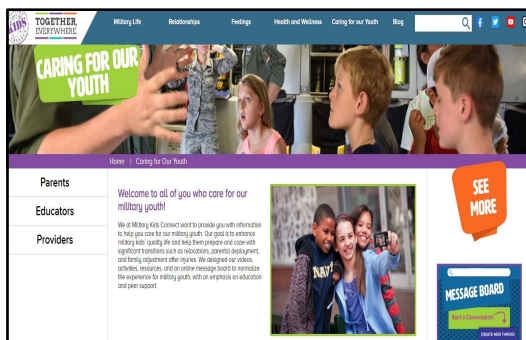
美 랜드연구소의 Harrell(2007)의 연구에 따르면 군인의 배우자들이 민간인의 배우자들 보다 실업률이 더 높아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했다. 또한, Cook와 Speirs(2005)의 연구에서도 해외파병으로 인한 가족들의 주거지 이동이 배우자의 고용률 감소와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보고했다. 이는 군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암시하는 결과이다.

2. 2. 파병 중(During Deployment)

‘가족과의 관계유지’부터 ‘긴급상황에 대한 대비’ 까지 4가지의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군인이 파병 중 가장 걱정되는 것은 본국에 남겨진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일 것이다. 이를 대비하여 파병군인 가족관계 전문상담관 제도(MFLC, Military Family Life Counseling)를 운영하고 있다. 파병군인들이 세계 어디

에 있는, 가족들이 미국 어디에 있더라도 이용 가능하도록 24시간 전화상담이 가능하며 희망할 경우 대면상담도 가능하다. 또한, 군인과 그 가족은 '관계강화 코칭'(Relationship Coaching)을 받을 수 있다. 심리학 석사 이상의 코치들이 전화를 이용하여 주 1회 정기적인 관계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년의 파병기간 동안 군인과 가족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는데서 전투력이 창출된다는 미군의 경험이 녹아든 지원정책이다.

파병군인에게는 자녀 학교의 출결 및 성적확인 시스템의 접속권한을 부여하고 담임선생님과도 정기적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의 학업에 문제가 없는지 파병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우리 군은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를 이용하여 군 가족들만의 비공식 커뮤니티가 존재하는데 반해 미군은 군 배우자들과 자녀들이 파병 전부터 교류할 수 있는 공식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취업, 학업, 이사, 세금 등 가족들이 직면할 수 있는 고충에 대한 해결방안들이 있고 파병부대원의 가족끼리 모여 식사, 파티, 봉사활동 등으로 유대감을 다진다. 또한, 파병부대의 일정, 파병군인의 사망이나 부상, 파병 기간의 연장, 파병지에서의 이동 등을 부대차원에서 공지하여 부정확한 정보가 양산되어 근거 없는 소문이 도는 것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가족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출처: <https://militarykidsconnect.health.mil/Caring-for-Our-Youth>
 그림 2. 파병가족 공식 커뮤니티
 Figure 2. Dispatched family community internet homepage

최악의 경우 파병 중 이별이나 이혼을 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개인의 일이라 치부할 수 있지만, 이별이나 이혼을 당한 군인의 입장에서는 임무에 집중하기 힘들 것이고 자연스럽게 부대의 전투력은 약화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Re the Me(다시 나로)'라는 프로그램을 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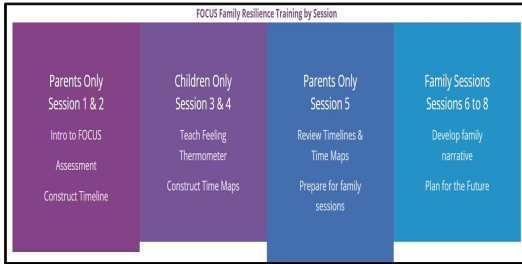
용하면서 이별(또는 이혼)후, 영양관리에서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스트레스 해소(명상, 호흡훈련 등), 군중 목사의 상담, 휴가, 여행·레저스포츠 활동 등을 지원하여 개인의 사기저하가 부대 전체로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Kelley(2001)는 연구에서 해외파병이 자녀들에게 우울증, 불안, 공격성 표출, 학업성적 저하의 문제와 같은 학교부적응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결과를 도출했으며 Lapp(2010)는 이라크 파병 장병들의 배우자들에 대한 연구에서 파병 복귀 후, 재결합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과정이며 배우자들에게는 마치 “재혼”을 하는 것 같은 심리적 두려움을 일으킨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는 파병 중에 군인과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이어나가고 연락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지원정책이 매우 중요함을 암시한다.

2. 3. 파병 후(Returning Home from Deployment)

'정신건강 관리'로부터 '건강검진'까지 총 12가지의 관리프로그램이 지원된다. 파병 후 군인과 그 가족의 가장 큰 고민은 신체와 정신에 대한 건강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미군은 Tricare라는 1년 단위 병원진료 요금제를 지원하고 있다. 미 국방보건청(DHA, Defense Health Agency)에서 민간병원 및 군 병원과 협약하여 시행하는 이 요금제는 미국에서 민간병원 진료 시 진료비가 비싸고 예약이 어려운 정신과, 치과, 산부인과, 건강검진까지 4종류의 진료를 수월하게 해준다. 미국의 의료시스템은 전화로 주치의의 예약하여 진료를 받고 추가로 필요한 진료를 다시 전문의를 예약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진료 대기기간이 길고 의료비가 비싸다. 하지만, Tricare요금제에 가입한 군인과 그 가족은 군 병원 진료에 우선권이 있으며 협약된 민간병원과 원하는 의사를 인터넷으로 지정 예약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긴급할 경우에는 협약되지 않은 병원 진료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 장점이다. 진료기간과 병원비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파병임무 수행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파병 후, 군인에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정신건강 관리이다. 미군은 파병 후 나타날 수 있는 정신질환을 크게 4가지(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전투스트레스, 우울증, 약물남용)로 세분화하여 군인과 그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2008년부터 시행 중이다.

FOCUS(Families OverComing Under Stress)라는 군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으로 하버드 의과대학과 UCLA의과대학에서 공동개발하였다. 이름에서 보듯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복원력 훈련이며 대면 교육으로 진행되고 일본과 독일을 포함한 미군이 주둔한 30여개의 기지에서 실시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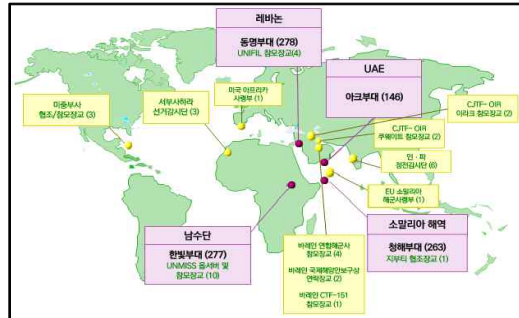
출처: <https://focusproject.org/services-0>
 그림 3. FOCUS 단계별 프로그램
 Figure 3. FOCUS Family Resilience Training by Session

부모에 대한 교육, 배우자에 대한 교육, 자녀에 대한 교육, 온 가족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되며 심리적 어려움이 나타나는 통계적 시기를 세분화하여(파병 후 1개월, 파병복귀 전 1개월, 휴가 전 1개월, 휴가기간)가족들과 군인을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1년간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생활한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에게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혼자 사는 미혼 군인, 부모님과 사는 미혼 군인, 자녀가 없는 기혼 군인, 자녀가 있는 기혼 군인, 자녀가 있는 미혼 군인 등으로 미군을 구성하는 인적요소의 환경을 고려하여 소외받는 인원이 없도록 노력한점이 돋보인다.

美 랜드연구소의 Karney와 Crown(2007)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미.공군 장교 및 병사의 결혼이 파국을 맞는 추세를 분석한 결과 파병 기간과 이혼 건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파병기간이 길어질수록 이혼의 건수는 증가한다는 뜻이다. Ruger(2002)는 파병장병 PTSD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군인이 파병으로 인해 PTSD가 발현될 경우 이혼 확률이 62%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연구결과는 파병 장병과 그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효과적인 ‘정신적 외상’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III. 결론 및 시사점

대한민국은 UN의 일원으로서, 다국적군 평화활동으로서, 그리고 국방협력의 일환으로 해외파병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부대는 육군의 동명부대(레바논), 한빛부대(남수단), 아크부대(UAE), 해군의 청해부대(소말리아 해역)가 있다.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부대 및 개인파병 총원은 1,004명이다 [3].



출처: https://www.mnd.go.kr/mbshome/mbs/mnd/subview.jsp?id=mnd_010901040000
 그림 4. 2022년 한국군 해외파병(견) 현황
 Figure 4. Status of dispatch of Korean forces overseas

이는 파병장병의 군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숫자가 최소 3,000명~4,000명이 될 것임을 암시한다.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과 대한민국 국군의 능력을 요구하는 국가가 점점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파병국과 파병장병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그 가족의 숫자 또한 증가할 것이고 군은 구체화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파병장병이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아래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파병 전 주거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다. 현재 해외파병에 관련된 최상위 근거문서는 국방부 ‘해외파병업무 훈령’이다. 대부분 작전 및 임무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며 그나마 파병장병과 군 가족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5조(부서별·기관별 업무분장)에서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각 군 참모총장의 업무로 ‘국내에 거주하는 파병요원 가족의 군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61조(군 관사 및 전세금 대부 지원)에 ‘파병장병에게 군 관사 및 전세대부를 우선지원’ 한다는 내용이 전부이다[4]. 훈령은 법률보다 구속력과 강제력이 약하여 군인가족들이 주거문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으며 만약 군 관사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그마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파병기간 동안 주

거문제에 대한 고충을 겪지 않도록 하는 미군의 군 장병 가족 지원법을 참고하여 군 가족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둘째, 파병 중 파병부대와 파병장병 가족간의 커뮤니티 구축이다. 현재는 국방부나 육해공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파병부대와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안내되어 있지 않다. 평소에는 개인적으로 연락할 것이지만 만약 현지의 통신사정이 좋지 않거나 불의의 일로 인해 연락이 제한된다면 국내의 가족들은 불안감에 휩싸일 것이다. 불안감은 근거 없는 소문을 양산하고 이는 군에 대한 신뢰저하로 이어진다. 따라서 군 가족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병부대의 활동을 공지하고 변경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알린다면 가족들의 불안감을 저하시키고 군에 대한 신뢰를 상승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파병 후 정신건강 관리이다. 베트남 파병 복귀 이후 상당수의 군인들이 PTSD 증상을 겪었다. 이 때문에 가정의 불화로 이혼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었고 심할 경우 범죄로 이어졌다. 하지만 파병 후 시간이 오래 경과하였고 전역을 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치료지원이나 국가유공자 지정문제 등에서 군과 마찰을 겪고 있다. 이는 군의 신뢰를 저하시켜 그들로 하여금 ‘책임지지 않는 군’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 정신건강은 ‘보이지 않는 부상’임을 자각하고 파병장병에 대한 군 전문상담관 배치, 복귀 후 의무적인 정신질환 검사 및 치료, 가족과 함께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파병장병과 그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5]. 따라서 본 연구는 파병 전·중·후 에 지원되는 미군의 정책을 알아보고 한국군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파병장병들과 그 가족에 대한 촘촘한 지원은 군인이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국위 선양과 우리의 선진 국방력을 알리는데 일조할 것을 기대한다.

- [3] https://www.mnd.go.kr/mbshome/mbs/mnd/subview.jsp?id=mnd_010901040000
- [4] <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91334>
- [5] I. C. Kim, S. K. Cho, J. H. Kim, M. S. Hong, S. H. Kang, S. H. Park, Domestic Research Trends on PTSD in Korean Soldier,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9(1), , 2023.

References

- [1] J. Jeon, Spiritual Support through Psychological Problems Analysis of Military Family. The Gospel and Counseling, 27(2), 201-222, 2019.
- [2] C. B. Moon, K. H. Choi, Effective Approach to Separation of Military Families: Focusing on the case of previous U.S. military studies, 1428, 2012.